

# 기업 '신화'의 틈 보기

## 이야기로 풀어보는 기업론, 기업인론

최근 특정 기업 또는 그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인을 소재로 3권의 책이 잇달아 출판, 서점가의 시선을 모으면서 그중 하나는 곧장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와 김인영의 「박태준보다 나은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유순하의 「삼성, 신화는 없다」가 화제의 책들이다.

이들은 거대 기업을 소재로 삼지만 경영서(계량으로서의)는 아니고, 주변 혹은 뒷얘기를 들춰내면서 그 기업들에 늘 붙어다니는 '신화'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각각 다르다. 하나는 신화를 가능케 한 원동력에 중점을 두고, 하나는 신화의 몰락과정과 교훈을 보여주며, 나머지 하나는 신화와 현실의 괴리에 메스를댄다.

「신화는 없다」(김영사)는 현직 의원(전국구)인 저자의 자전 에세이다. 정주영 회장의 정치참여를 만류하다 현대와 결별하게 된 사연으로 시작, 포항 달동네에서 가난한 노점상을 하며 굶기를 밥먹듯한 어린 시절부터 고려대 학생회장으로 6·3시위를 주동한 뒤 학생운동 전력자로서 어렵게 현대에 입사,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개 중소기업이던 현대를 한국 최초의 그룹으로 키울 때까지 겪은 숱한 영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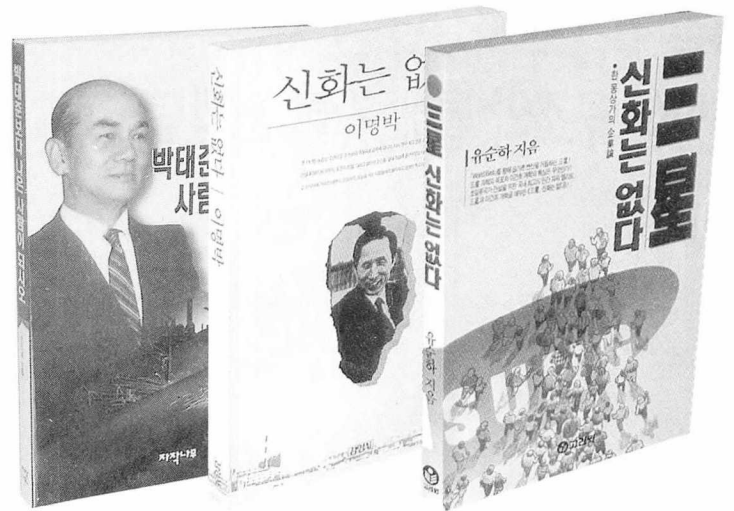
이 책을 보면 현대의 급성장과 함께 저자도 초고속 승진을 거듭,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6개 계열사 회장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표현을 거부

한다. 밖에서 볼 때 신화일 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겉걸의 위기와 안팎의 도전으로 둘러싸인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 시련 앞에서 자신은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 '작은 용기'를 사람들은 신화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그룹의 신화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같이 밤을 새우고, 밀림과 사막에서 청춘을 불사르며, 심지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해온 세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저자의 강변이다.

「박태준보다...」(자작나무)는 전 포항제철 회장 박태준이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보인 행보와 그가 정치권에서 밀려난 뒤 포철에 붙어 다닌 격변을 서술한 보고서로, 서울경제신문 기자인 저자가 92년 9월부터 94년 1월까지 포항제철을 출입하며 취재한 자료를 정리한 것.

포철은 지난 1968년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기술·경험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출범했으나 25년만에 조강능력 세계 2위의 제철회사로 성장했고, 그동안 우리 산업의 각 분야에 질 좋은 기초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됐은 기업이고, 박태준은 소유주가 국가인 이 공기업을 25년 동안 회장으로 장기집권하면서 일구어왔다. 이러한 '포철=박태준 신화'에 균열이 생긴 결정적 계기를 저자는 박태준의 정치참여에서 찾는다.

이 책에 따르면, 박태준은 90년 초 여당 대표로 정치권에 입문, 대권의 꿈을 키우면서 반YS의 선봉장이 되었다가 92년 대선을 둘러



싸고 벌어진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YS의 승리로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고 동경에 장기 체류하게 된다. 박태준 없는 포철은 후임 체제에 의해 일대 개혁을 겪게 되는데, 초점은 박태준 흔적 지우기였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포철 신화가 다시 정치권의 소송들이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러니를 지켜보면서 "기업은 기업으로 존제하고 발전해야지 정치에 참여해서도, 정치권의 개입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교훈을 결론으로 삼는다.

작가 유순하의 「삼성, 신화는 없다」(고려원)는 기업에 대해 앞의 책들과는 다소 구별되는 접근법을 취한다. 즉 그가 이미 「한 몽상가의 여자론」을 출간하면서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특정 기업을 모델로 삼아 우리 사회의 인문적 현상을 분석·비판한다.

저자가 일차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삼성 신경영'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구상 이후 구체화된 것으로 체계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 사회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저자의 시각은 일단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인간미·도덕성·예의 범절·에티켓(삼성헌법) 등의 개념이나 '인류사회에 공헌한다'(경영이념)는 명제가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복지부동' 중인 18만 삼성인과 '이상주의자' '고독한 경영자' 이건희가 그리는 세상의 '틈'이 너무 크다.

그러나 저자의 비판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적 현상이며 삼성은 다만 그 하나의 구체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자는 그 점에서 삼성에 기대를 건다. 기존의 정치집단이나 관료집단, 심지어 종교집단조차도 제 기능을 못하는 이 위기상황에서는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일 바에야) 기업조직, 특히 뚜렷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삼성같은 기업이 현실 개선의 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윤에 대한 맹목적 추구보다는 사회적 당위를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제3차원의 상술'을 펴야 한다는 대안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황기직>

### 편집 · 사식 · 출판 대행

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39-1 동신빌딩 201호  
전화 / 737-2308 737-2309 팩스 / 737-2309



## “ 편집 · 사식 대행업체는 많습니다.

### 그리고

## 편집 실무자들의 불만 역시 많습니다.”

110-240은 가족공동체를 지향합니다

110-240은 구성원 모두가 직원인 동시에 주주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주주이고 모든 주주가 직원일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동아리이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출판 및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이어서, 이러한 신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작은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